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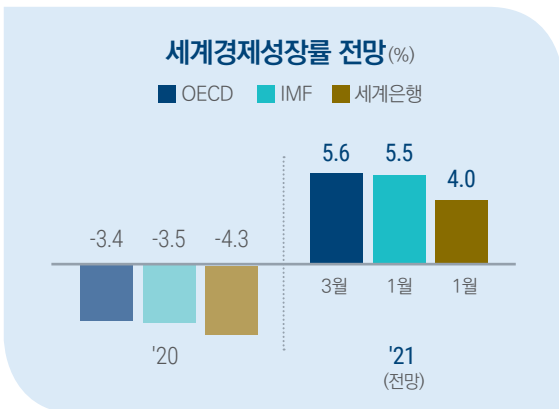
## 2021 경제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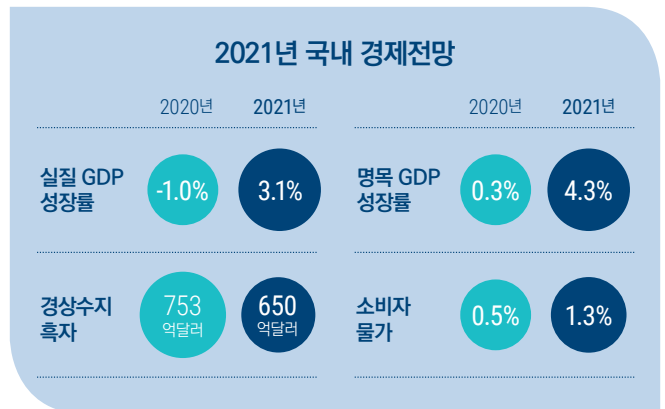
“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가 예상되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간소비는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만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더딘 회복이 예상됩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완화되고 대면서비스 업종이 제한적으로 회복되어 전년대비 8.3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며 1.3% 상승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비대면경제활성화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으로서 우리 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술 혁신 등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2021 경제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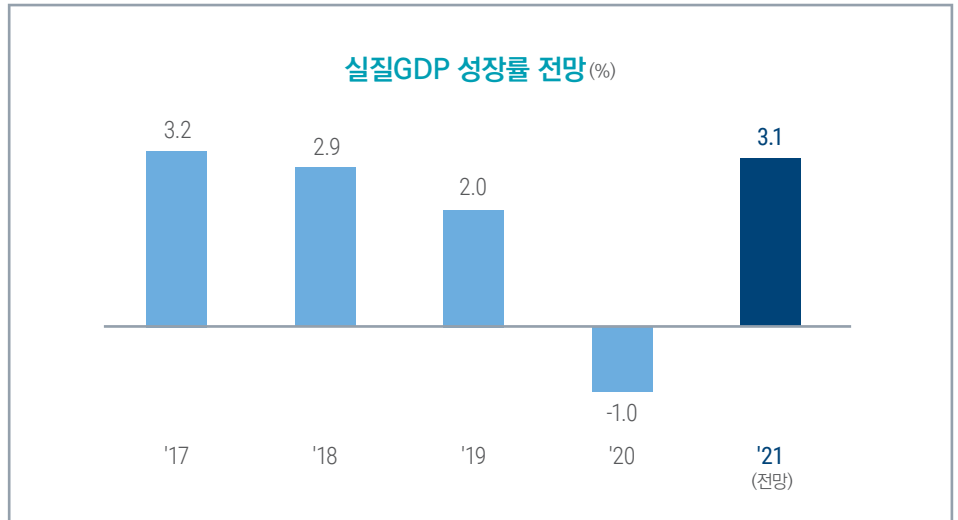
주: 1. 2020년은 추정, 2021년은 전망  
자료: OECD, IMF, 세계은행



## I.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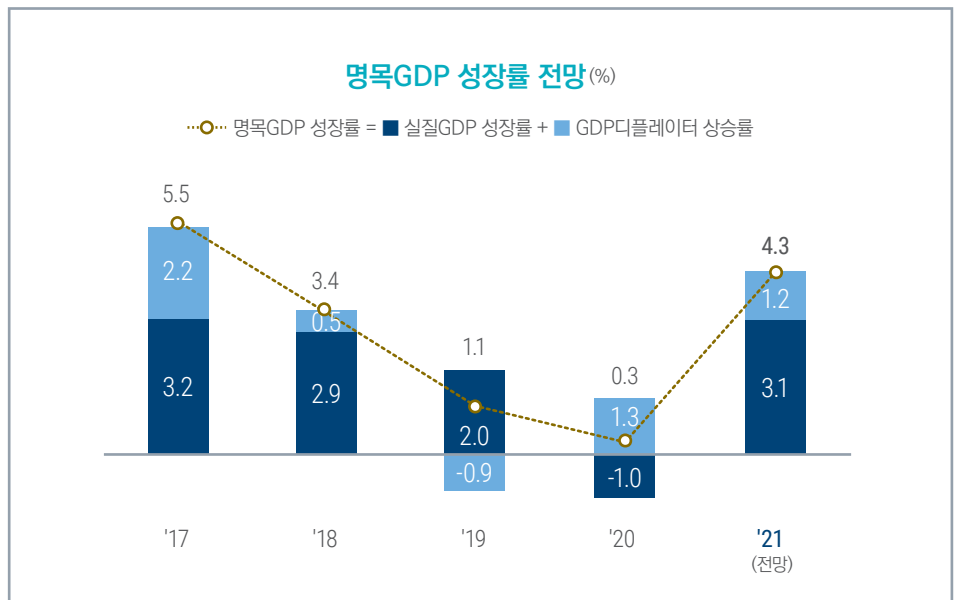
### 1. 실질GDP 성장률

-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할 전망
-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와 총수출(재화 및 서비스)이 2020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투자는 확대될 전망



### 2. 명목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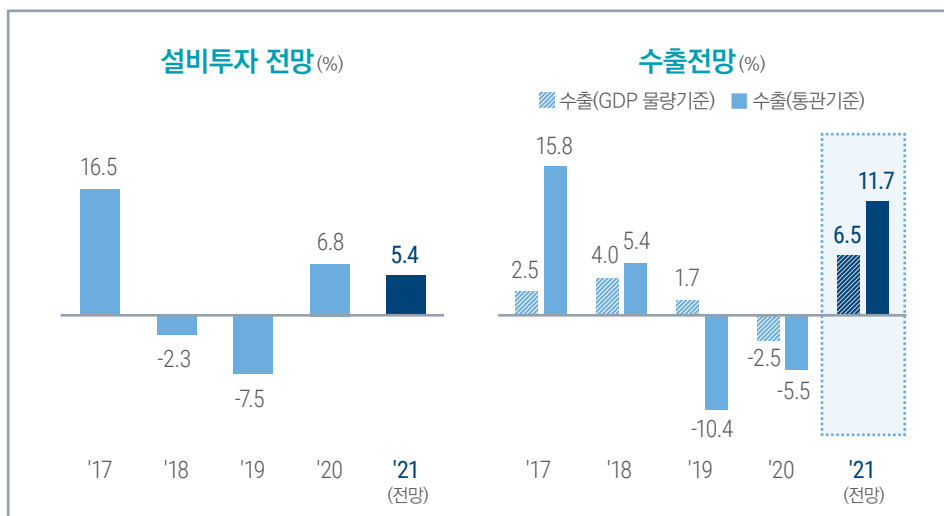
- 2021년 명목GDP 성장률은 경기회복세로 실질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GDP디플레이터 상승이 유지되며 연간 4.3% 전망



## II. 내수 및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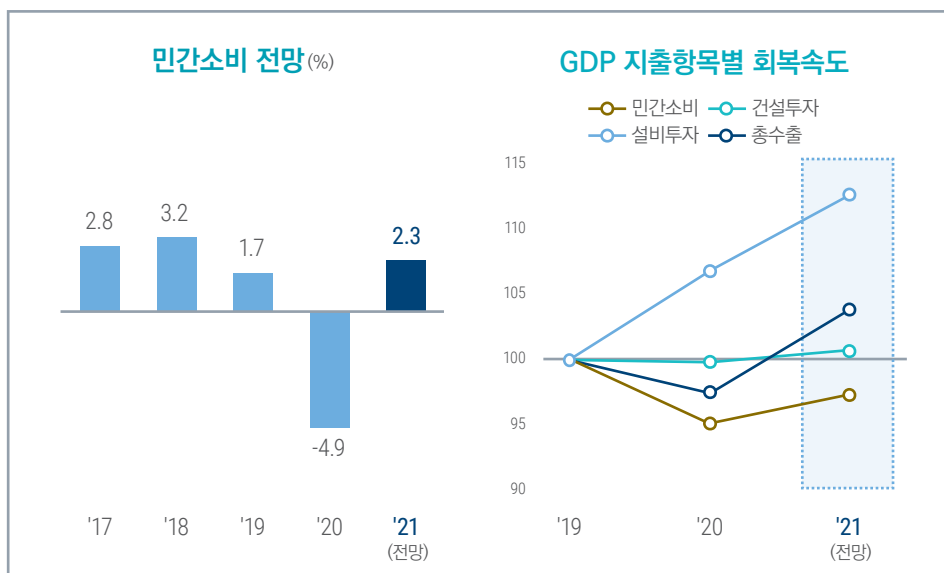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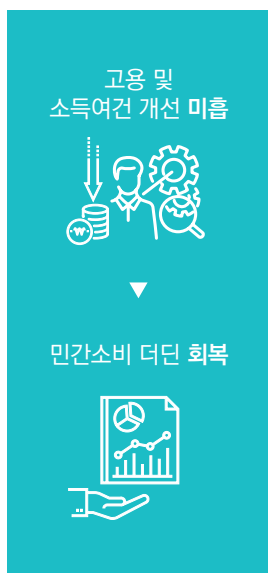
### 1. 설비투자과 수출

-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의 투자확대와, 친환경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IT부문의 신규투자도 늘어날 전망
- 총수출(국민계정 물량기준)은 서비스수출이 해외여행객 입국 제한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재화수출이 해외 수요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2.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개선, 저축률 상승세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으로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겠으나, 가계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더딘 회복을 보일 전망



### III. 고용 및 물가, 원/달러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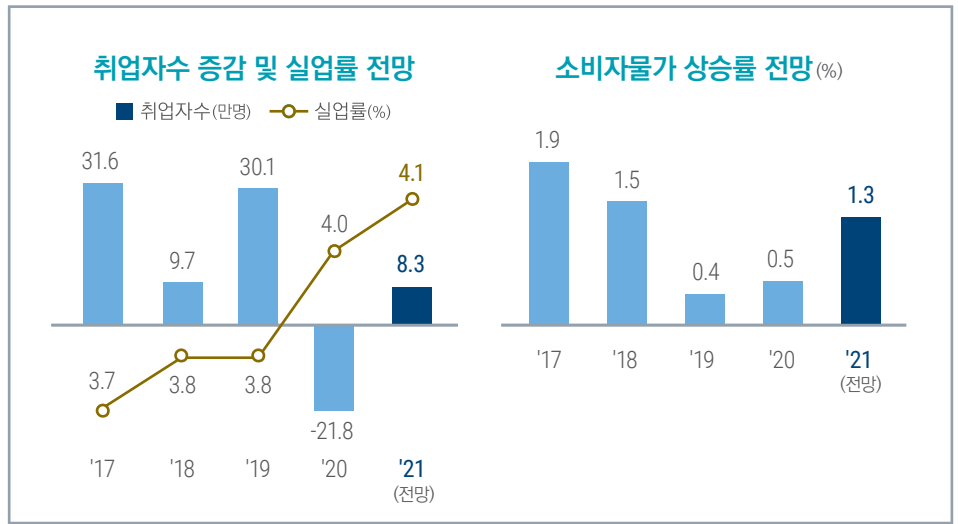
#### 1. 고용 및 물가

- 2021년 전체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부진 완화, 대면서비스 업종의 제한적인 회복세 등으로 전년 대비 8.3만명 증가
-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모두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며 1.3% 상승 전망

취업자수 8.3만명 증가

실업률 4.1%

고용률 60.0%



#### 2. 원/달러 환율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국내 거시경제 기초여건, 외환시장 내 달러화 공급 확대, 달러화 약세기조 등으로 2020년보다 낮은 연평균 1,130원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

